납치·폭행·유괴범 잡는 CCTV

광주선 운영비 싸움에 '먹통'

구청·경찰 대당 月 10만원 미루다 설치 무산

최근 어린이 성폭행 살해와 납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CCTV(폐쇄회로TV) 증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광주시와 구청, 경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CCTV 운영비용을 서로 떠넘겨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일 현재 광주지역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는 17개소에 32대.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방범용 CCTV 3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광주시에 예산을 요구해 3억6천여만원(30개소 60대)의 설치비용을 확보했다.

그러나 CCTV 추가설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추가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월 300여만원의 운영비용이 걸림돌로 등장한 것이다.

광주시는 CCTV 설치 비용은 시청이 부담하지만 운영비용은 각 구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키로 했으나 각 구청은 운영비 지원을 거절했다. 시와 구청, 경찰간 운영비 떠넘기기의 와중에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 미수 및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로부터 CCTV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데 예산문제로 난감한 상황"이라며 "다른 지역의 경우 시·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광주는 왜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구청 관계자는 "치안 업무는 경찰 소관인데 CCTV 관리를 직접하고 있는 경찰의 예산까지 우리더러 지원해 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경찰 업무 예산까지 떠맡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는 5천833대. 광주(32대)는 대구(618대)나 대전(현 38대, 55대 추가 예정), 인천(89대), 부산(74대) 등에 비해 훨씬 적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 등 타 지역의 경우 도와 시·군 등에서 설치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부산시가 3일 시비를 들여 공원과 가로 등 시내 600여군데에 CCTV를 설치한다는 성범죄 예방 계획을 발표한 것과도 한참 대조된다.

경찰과 시·구청간의 이러한 엇박자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어난 어린이 성추행이나 살인사건 등을 CCTV 분석을 통해 해결하는 등 CCTV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은 뒷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부 하모(51·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잇따른 납치·실종 사건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치안 공백이 계속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각 기관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 CCTV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범죄예방을 위해 광주시내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으나 광주시와 각 구청, 경찰서가 CCTV 운영비 부담주체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교회 앞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애아동 보호 '수호천사' 떴다

광주 북구청, 위치 파악 서비스 실시

어린이 납치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수호천사'가 등장했다. '수호천사'는 위성항법장치(GPS) 단말기를 장애아동에게 지급해 어린이의 위치를 오차범위 5m 이내까지 파악,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광주시 북구청은 관내 중증 장애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수호천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동남텔레콤 SK텔레콤 오치대리점과 위탁 협약을 체결한 구는 지난 1일부터 희망스타트센터 장애아동 10명에게 단말기를 지급했으며, 통신료와 기기 구입비는 협약업체와 공동부담키로 했다.

북구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지급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장애아동의 경우 실종·납치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많은 어린이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서도 초등생 납치 미수

여수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납치될 뻔 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밤 9시께 여수시 여서동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13층에 사는 초등학생 A양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남학생 2명에게 붙들렸다. 이들은 A양의 손목을 붙잡고 "옥상으로 올라가자"며 위협했고, A양은 자신의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순간적으로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쳤다.

A양의 아버지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경비실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이들의 모습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CCTV에는 이들의 복장과 신발 등이 찍혔을 뿐 얼굴은 찍히지 않아 경찰은 이들의 신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학교 등을 탐문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귀가 여학생 성추행 고교생 2명 붙잡아

순천경찰은 3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중인 여학생을 성추행한 안모(17·고1) 군 등 고등학생 2명을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 등은 2일 새벽 0시45분께 순천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수업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는 A(16·고1)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17층 옥상 입구로 끌고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인 중 범행 후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먹는 장면을 확인하고 주변 학교 탐문 수사를 벌여 안군 등을 검거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강화 초병 살해 30대 사형 선고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해 초병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5)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3일 오후 이 법원에서 열린 피고인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죄질, 범행 후 증거인멸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실탄 75발 등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연합뉴스

학교 담장 딜레마

학부모 "성범죄 위험…철거해야"

학교 "역사의 한 부분…신중해야"

광주시내 한 초등학교가 담장 철거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학부모들은 높은 담장이 가뜩이나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성범죄를 부추긴다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동문들은 담장도 오랜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동부교육청과 S초교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 초등생이 학교 담장 옆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뻔 했다. 재빨리 달아나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주민들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담장 담장을 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0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진 이 학교의 모든 건물들은 광주시 등록문화재(제17호)로 지정돼 있는데다, 동문들의 반대가 예상돼 함부로 담장을 허물 수 없는 상황이다.

S초교 교장은 "담장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교사(校舍)의 일부여서 동문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며 "학부모총회에 안건을 올려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동문들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성추행 미수 사건 발생 이후 담장 인근에 CCTV 두 대를 설치하고 조명등 4개를 달았다. 또 관할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이 없는 별관에 새 화장실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교장은 "우리 학교와 비슷한 처지의 한 학교가 이미 담장을 허문 경험을 갖고 있어 문의했더니 여러 이유를 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며 "학부모의 의견을 받들자면 담장을 허무는 게 맞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다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목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시공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캠페인 인지 선거운동인지 헷갈려"

쌍나팔

○…4·9 총선을 앞두고 광주 일선 구청의 한 직원이 내부 통신망에 '선거운동원으로 비친 공무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눈길.

○…3일 북구청에 따르면 직원 40여명은 전날 오전 7시30분께 북구청 사거리에서 '2013년 광주 하계 U대회' 유치를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했다는 것.

○…캠페인을 마친 북구청 모 직원은 내부 통신망에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속에 섞여 캠페인을 했다. 주황색 조끼에 하얀색 어깨띠를 두른 모습이 마치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

○…이 직원은 또 "이런 모습을 본 시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홍보효과 없는 캠페인을 연기하자. 획일적인 우리 조직이 부끄럽다"고 쓴소리.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